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잠 23:22-26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몇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생전에 아버지 봉양하기를 힘써야지 돌아가신 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미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있지만, 실제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은 어머니날이기에 오늘 어머니날에 아버지들도 함께 께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적게 아니면 많이 받았느냐, 짧게 혹은 길게 받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의 자리와 사랑은 결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계시고, 젊은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십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 합니다.

1. 부모에게 청중하라. 본문 22 절에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늙으신 네 어머니를 우습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실 상관이 시키는 대로 하기는 쉬워도 부모의 말씀을 잘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청중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청중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록펠러(Rockefeller, 1839-1937)는 어려서 무척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문팔이와 공장 직공으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였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산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10 가지 유언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십일조를 보관해 두어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째, 매일 아침마다 그 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째, 주일예배는 꼭 본 교회에서 드려라. 열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간결하지만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록펠러가 어머니의 10 가지 유언을 그대로 청중했을 때, 그는 신앙의 위인이 되었고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청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육 간에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효도는 나와 후손이 복 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인격, 재산, 지위, 신앙, 사랑을 초월하여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청중해야 합니다. 청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부모가 맘에 안 들어도 하나님보고 청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알아주십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청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부모에게 청중하여 부모를 즐겁게 해 드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2.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본문 22 절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르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늙으신 네 어머니를 우습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경히는 '경홀히'의 준말인데, 신중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젊고, 능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어 도움이 되면 자녀가 부모를 경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늙게 되면 외모, 언어, 능력, 경제적인 면에서 부족하게 됩니다. 도움은커녕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크게 생각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늙고 초라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자녀인 것입니다.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크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를 칭찬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존재입니다. 부모를 크게 생각할 때 자녀도 크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는 것은 자신이 망하고 저주받는 길이며,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필리핀의 마닐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커다란 군함을 막 출항시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 해군 병사의 옷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공격을 위해 떠나야 하는 상황에 그 해군 병사는 말리는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어 옷을 건져냈습니다. 그 병사는 명령 불복종 죄로 즉시 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관인 듀이 장군이 그 해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귀관은 그까짓 옷 하나를 건지려고 상관의 명령을 어겼단 말인가?" 그때 병사는 물에 젖은 옷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듀이 장군은 병사의 손을 잡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거는 자네는 진정 용기 있는 군인이다. 자네는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것이야." 병사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의 몸, 삶, 말씀, 인생, 신앙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를 크게 섬길 때 하나님을 크게 섬기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식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됩니다. 부모를 크게 섬김으로 즐겁게 해 드리는 좋은 자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3. 부모를 기쁘게 하라. 본문 24-25 절 "바르게 사는 자식을 보면 그 아버지는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요, 슬기롭게 사는 자식을 둔 아버지는 한없이 흐뭇할 것이다. 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라. 네 어미를 흐뭇하게 해드려라." 옛날 한 마을에 유명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마을에도 다른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 하면 더욱 정성스럽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을까를 배우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웃 마을로 가서 그 효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는 밭에 일하러 나가 집에는 그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곧 올 테니 잠시 기다리시지요." 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참을 기다리자 아들이 바구니를 지고 돌아왔습니다. 문 옆에 바구니를 놓더니 마루에 걸터앉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일찍 돌아왔구나." 하며 대야에다가 더운물을 떠 와 흙투성이인 아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발을 다 씻자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아들은 마루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다 주었습니다. 이웃마을에서 방문한 효자는 그 광경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자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저는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가 계시다고 해서 찾아와 아까부터 지켜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모친께 너무나 것이 아닌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효자가 되기 위해 효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접 몸을 움직여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해 드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한 저의 즐거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즐겁고 기쁘게 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고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지만,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부모를 섬긴다면, 결코 기쁨과 즐거움은 서로에게 없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인생, 가정, 교회생활이 돼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자녀가 있어야 좋은 부모가 있습니다. 더욱 좋은 자녀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면 모두가 잘 됩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가 잘하면 행복한 인생과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청종합시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 부모를 기쁘게 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부모를 최고로 즐겁게 해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